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이상 돌파

전주농협, 1조5000억원 달성탑 수상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상호금융예수금 1조5,000억원을 달성해 지난 16일 '상호금융예수금 1조5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이는 2016년 전북지역 농·축협 최초로 1조원 달성탑 수상 이후 또 다시 4년만에 이룬 쾌거다.

전주농협이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본적으로 경영이 탄실해 우리지역 농업인 조합원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금을 해준 덕분이다.

전주농협은 예수금 증가에 힘 입어 여타 금융사업도 전반적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대출금도 현재 1조3,50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2021년 사업계획에 1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상호금융대출금도 1조5,000억원 달성탑을 무난히 수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 배출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이는 전국 1,118개 농·축협에서



전주농협이 상호금융예수금 1조5,000억원을 달성해 지난 16일 '상호금융예수금 1조5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이는 2016년 전북지역 농·축협 최초로 1조원 달성탑 수상 이후 또 다시 4년만에 이룬 쾌거다.

히 수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 배출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이는 전국 1,118개 농·축협에서

배출한 328명의 연도대상 수상자 중 2% 이상을 점유하는 실적이다.

이같은 경영성과는 우리지역 농업인 조합원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영농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국 최고 수준인 70억원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전주농협은 매년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재 농협이 표방하고 있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백년농협'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임인규 조합장은 "저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고객의 뜨거운 사랑과 안정적인 경영에 대한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에 최선의 기여를 하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다중오믹스 기반 정보 활용 천연물 질병예방 효능 예측

식품연구원, 플랫폼 기술 Bio-FINE 개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원)은 식품기능연구본부 최인목 박사 연구팀이 다중오믹스 기반 생물정보를 활용해 천연물의 질병예방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Bio-FINE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수명연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질병의 치료 못지않게 질병예방에 더욱 집중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식이요인에 의해 비롯된다고 하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리활성성분들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각종 천연물에는 생리활성성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 신규 치료제 개발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in vitro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의 과정을 통해 많은 노력과 시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점 등이 천연물의 고부가가치 식·의약품 소재 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천연물 효능 예측시스템(Bio-FINE)은 다중오믹스 기반의 생물정보분석을 통해 다양한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구진은 천연물에 의한 유전자 발현조성 변화, 기능성별 유전자 마커의 해리관 RNA 정보(sRNA), 환자 유전자 빅데이터 등 정보를 활용해 국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면역기능 개선, 현재 원산지 이력추적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물 40여 종에 대한 단독 또는 2,000여 조합에 대한 생리활성 예측 결과를 DB화했으며, 천연물 100종 이상에 대한 DB가 완성되면 정보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천연물 식의약품 소재 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Bio-FINE 플랫폼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의 '천연물 효능 예측 DB(Bio-FINE) 구축사업(2018~202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윤상 기자

항산화, 장 건강 개선, 체지방 감소 등 10종의 기능성과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16종의 질환에 대한 천연물의 개선 효능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천연물 단독뿐만 아니라 2~3종이 혼합된 천연물의 경우에도 기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개별인정원료를 대상으로 Bio-FINE의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18종의 기능성 중 15종을 정확히 예측(정확도 83.3%)했다. 질환개선 효능 예측에 대한 정확성 검증은 기존의 치료효과가 알려진 약물에 대한 in silico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Bio-FINE으로부터 면역진진 및 간 건강진진 효능이 예측된 천연물 2종은 동물실험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산업체에 기술이전했다. 천연물 예측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DB화하고, 효능 예측과 결과해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network view(네트워크 뷰), pathway view 등의 기능을 갖춘 Bio-FINE 웹을 구축해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구현했다.

현재 원산지 이력추적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물 40여 종에 대한 단독 또는 2,000여 조합에 대한 생리활성 예측 결과를 DB화했으며, 천연물 100종 이상에 대한 DB가 완성되면 정보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천연물 식의약품 소재 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Bio-FINE 플랫폼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의 '천연물 효능 예측 DB(Bio-FINE) 구축사업(2018~202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윤상 기자

총 자산 1조127억원 달성... 전국 선도농협 '우뚛'

익산농협 "한단계 도약하는 농협 만들기 위해 책임 막중"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은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의 혼연일체로 자산 총액 1조127억원(10월 기준)을 달성해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전국의 선도농협으로 우뚛 섰다. 1972년 설립해 49주년을 맞이한 익산

농협은 2015년 3월 김병욱 조합장 취임 이후 예수금 6,323억원, 대출금 3,984억원, 예대비율 63%에서 지난 10월 말 기준 예수금 8,910억원, 대출금 7,335억 원, 예대비율 82.3%로 큰폭으로 성장했으며, 예수금 1조원 달성도 목전에 두고 있다.

김병욱 조합장은 "자산 1조원 시대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농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생산, 유통, 가공 전문농협 도약을 위해 대체작물 육성, 가공사업 확대, 다양한 보조사업 실시 등 조합원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익산농협은 본점과 13개 지점, 3개의 하나로마트, 미곡종합처리장, 주유소, 떡 방앗간,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농협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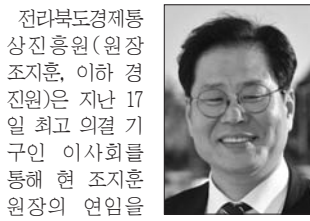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남상희 상담사 FP 전문가 부문 우수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7일 열린 한국FP협회와 한국FP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FP콘테스트 전문가 부문'에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남상희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우수상(1등)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단 전문상담사의 뛰어난 재무설계능력을 인정받은 것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공단의 종합재무설계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수상 사례는 일반적인 40~50대 회사원의 재무설계 사례가 아닌 30대 미혼 프리랜서의 재무설계 상담 내용으로, 특히 '진단 → 상담 → 관계기관 연계/교육 →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단만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의 강점이 잘 담겨져 있다. /김윤상 기자

조지훈 경진원장 연임 의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17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현 조지훈 원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조지훈 원장은 1968년생으로 전북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 12월부터 경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7월부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원장은 지난 2년 간 경진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도정 정책방향에 따른 체계적 사업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기관의 경영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랑의 연탄 나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전북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일원인 홀몸 어르신 가구를 찾아 연탄 75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송년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전북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일원인 홀몸 어르신 가구를 찾아 연탄 75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윤상 기자

하림 익산공장 견학프로그램 새롭게 구성

누구나 관람 가능토록 체계화 프레스 로드 등 2개 섹션 나뉘어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오감 체험을 통해 닭고기의 신선함을 배울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주)하림은 동물복지 설비와 에어철링 설비 등 유럽형 최신 설비가 갖춰진 익산공장을 방문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체계화된 견학 프로그램을 완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하림 익산공장 견학라인과 익산 합월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하림식품의 공유주방을 오는 2021년까지 연결해 식품산업의 메카 익산시를 대표하는 산업관광형 푸드 투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림 닭고기의 신선함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신선함의 비밀을 엿보다'라는 테마를 주제로 도계 공정인 '프레스 로드(Fresh Road)'와 육가공 공정인 '시크릿 로드(Secret Road)' 등 2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견학의 시작은 하림의 대표 캐릭터인 용가리가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용가리의 환영을 뒤로하고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진 에그씨어터에서 맛있는 닭고기의 비밀 영상을 시청하고 갤러리도 이동한다. 하림 갤러리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컴퓨터그래픽과 반응형 미디어 등을 통해 닭고기의 신선함과 맛을 지키기 위한 최신 설비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하림 역사 및 제품, 하림그룹에 대한 역사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프레스 로드에서는 농장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을 유럽형 동물복지 설비를 사용해 실제로 도계하는 공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하림의 핵심 기술인 에어철링 공정 단계에서는 갖 잡은 닭고기를 만져보고 느끼면서 신선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일 도계된 신선한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사용해 곧바로 육가공제품을 만드는 시크릿 로드도 용가리 치킨, 텐터스틱 등 가공공정을 둘러보고 눈앞에서 만들어진 맛있는 육가공제품을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쿠팡클래스에서는 견학객들 가운데 신장자에 한해 특별한 요리 수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농진청, 배추 정식기·수확기 개발

전체 작업시간 절반이상 절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배추 생산 과정 가운데 정식(아주심기)과 수확 작업을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술 개발로 기존 기계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운(흙갈이)과 땅 고르기, 피복(덮기), 방제 작업에 더해 인력에만 의존하던 정식과 수확 작업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은 자동 정식기 1종, 반자동 정식기 2종 등 정식 기계와 수집형 배추 수확기다. 자동 정식기는 규격화된 육묘 상자에 균일하게 배추씨를 뿌린 뒤 25~30일 동안 길러 작물 길이가 7~10cm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동근 외두둑 1줄 재배 시 자동으로 모종을 뽑아 심고, 심는 간격은 10~70cm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육묘 상자에서 모종을 뽑아 정식기에 공급하면서 심는 반자동 정식기는 심는 간격을 20~60cm 내에서 조절할 수 있으며, 작업 시 운전자와 모종 공급자 2명이 필요하다. 특히 평두둑 2줄 재배 시 한 번에 2줄씩 심는 2조식 반자동 정식기는 심는 간

격은 22~60cm까지, 줄 간격은 30~70cm까지 조절할 수 있다. 정식기를 사용하면 다양한 재배 양식으로 배추를 심을 수 있으며, 작업시간도 10아르(a)당 약 1.5~2.0시간이 소요돼 인력으로 심을 때(12.3시간)보다 86.4~90% 줄일 수 있다.

수집형 배추 수확기는 트랙터 뒤쪽에 붙여 사용하며, 배추를 옮기는 이송 벨트와 이송된 배추를 통백에 수집하는 수집 장치로 구성돼 있다. 먼저 사람이 칼로 배추 뿌리를 절단해 놓은 뒤 배추 수확기가 진입하면 작업자가 뒤따라가면서 배추를 집어 이송 벨트에 올려준다. 그러면 배추가 자동으로 통백에 담긴다. 수확기를 사용하면 10아르(a)당 1.85시간이 들어 인력으로 수확할 때(25.6시간)보다 92.8%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정식·수확 기술을 배추 생산 전 과정 기계화 작업체계에 적용할 경우, 배추 생산에 드는 전체 작업 시간은 10아르(a)당 31.5시간으로 나타나 인력으로 할 때(70.9시간)보다 55.6% 줄었다. 생산비용도 10아르(a)당 87만 8,000원으로 조사돼 인력 작업(191만 8,000원)보다 54.2% 절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손보, 인삼 등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2년근 이상 재배 피해 보장... 농가는 5~20%만 보험료 부담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 장 강희상)은 인삼·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11월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인삼·마늘·양파·복숭아·자두·매실·오디·밀·보리·복분자(고창·정읍·순창)·오미자(장수)가 27일까지, 포도는 12월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인삼 품목의 경우 전년도까지 연 1회만 보험 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는 인삼 2차례 판매하는 등 보장 수

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11월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인삼·마늘·양파·복숭아·자두·매실·오디·밀·보리·복분자(고창·정읍·순창)·오미자(장수)가 27일까지, 포도는 12월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인삼 품목의 경우 전년도까지 연 1회만 보험 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는 인삼 2차례 판매하는 등 보장 수 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해가림 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화재, 조수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4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해 농가는 5~20%만 지원하면 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와 폭염 대비 관수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